

財務管理의 定着化 方向

朴 廷 寔*

財務管理은 經營學의 한 分野로서 企業環境과 企業의 要求에 따라 重心課題와 理論의 實踐을 위한 方法論에 變化를 가져오며 現在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는 財務管理에서 資金調達의 必要性이 強調되지 않으며 企業自體內에서 發生하는 利益의 管理가 問題가 될 것이다. 現在의 財務管理의 兩主流은 첫째, 企業의 評價理論(valuation theory), 둘째, 「포트폴리오」管理(portfolio management)이며 管理對象은 自國의 企業에서 國際的으로 그 範圍가 넓혀진다고 볼 수 있다. 財務管理가 經營學의 한 分野로서 認識된 것은 最近이며 여태까지 會計學의 한 分野로 생각되어 왔다. 最近에는 證券市場의 確立에 따라 財務管理의 領域이 證券投資에까지 넓혀지고 있으며 財務管理의 重要性이 認識되고 있지만 財務管理은 財務管理이고 證券投資는 證券投資로 別個의 學問分野인 것이다. 韓國에서는 企業의 急激한 成長과 더불어 企業問題解決의 必要性때문에 財務管理에 대한 相當한 研究가 있었으나 當面한 企業環境 때문에 財務管理의 發達이 꽤 어려운 實情에 있다. 財務管理가 發達하지 못한 原因을 보면 첫째, 企業의 家族中心制로 인한 財務機能의 中央集權的, 둘째, 經濟成長에 따르는 非科學的인 資本調達, 셋째, 資金調達時 現實金利와 法定金利의 差異, 넷째, 美國을 中心으로 發達된 財務管理의 企業背景과 韓國企業背景의 差異, 다섯째, 財務管理擔當教授의 不足等を 들 수 있다.

빠른 經濟成長으로 因하여 資本調達が 財務管理의 根本課題가 되어왔다. 高度의 成長은 資金의 效率的인 利用과 財務統制機能을 수반하여야 하며 資金調達問題, 資金運用問題, 資本統制問題에서 機能의 調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最近의 資本調達の 傾向을 보면 金融機關으로부터 벗어나 證券市場을 통한 資金調達が 企業의 發展에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資本市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助教授

場을 利用한 資金調達을 위해서는 資本市場의 動態를 完全히 파악해야 하며 適正政策으로 株價가 上昇토록하여 資金調達能力을 增加시켜야 한다. 資本調達도 큰 問題이나 景氣變動이 심하거나 不透明할때는 資金의 適切한 使用이 重要하게 되어 資產利用에 대한 先進國의 模型을 改善開發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게 해야 한다. 또한 資金計劃과 統制를 위해 豫算制度의 確立이 시급하며 輸出入國으로서의 韓國經濟體制는 企業의 國際化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結論의으로 財務管理의 定着化를 위한 學界의 方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財務管理教科過程의 再整備
- (2) 分析的 教育의 實施
- (3) 韓國企業環境에 대한 實證的 考察
- (4) 財務管理學會의 設立
- (5) 他學問과의 交流
- (6) 企業의 中間管理層의 教育

生産管理의 土着化

金 海 天*

우리나라의 産業化 過程에 있어 實用的 價値의 認識에서 生産管理의 體系化 實踐化가 進行되고 있으나 産業化에 대한 諸般與件의 未備와 未熟으로 問題點이 많다. 現在 生産管理의 土着化는 産業化 課題의 수행을 위해 研究되고 있으나 土着化의 方向設定을 위한 理論的 體系化는 아직도 미흡한 段階에 있다.

生産管理의 必要性—土着化의 必要性: 産業經營의 當面課題는 國際競爭力의 增大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品質向上, 原價絶減, 價格引下等 生産管理의 役割이 必要하고, 土着化가 絶실하다. 生産管理는 生産시스템의 特性을 究明하고 이에 알맞는 管理시스템의 設計와 運營, 統制에 관한 體系的 研究가 그 目的이다. 生産管理의 課題는 經營內的으로는 給付生産에必

* 高麗大學校 商科大學 教授